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 제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 2021년도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환우와 시니어 공동체를 위하여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 사무처리회를 위하여(10/24)
- 국내/해외의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와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김명신 목사) 위하여
-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믿음의 교회 - 윤법균 목사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 선교 지역	선교 방송 스케줄
▶ 방송 선교지원	▶ 코엠TV(채널 257): 매주일 7:25AM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라디오 한국(AM 1450): 매주일 8:30AM
▶ 아프리카 우물과기	▶ 라디오 코리아(어플다운): 매주일 7:00AM
▶ 샤론센터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한국선원 선교회	
▶ 이완구 장학사역	

해외 선교 지역	기독교 기관 선교
▶ 동아시아 50개 교회	▶ 미주 남침례회 SBC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쿠바(정경석)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니카라과(혜밀탄)	▶ 한인국내선교부
▶ 도미니카 아이티(문애희/Vilcaive)	▶ 한인해외선교부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잠비아(Emile)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말레이시아(고인섭)	▶ 밀알선교단
▶ 터키(이성숙/자슈아)	
▶ 슬로바키아	
▶ 헝가리/집시선교(박완주)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 목사

SINCE 1975

2021년 10월 10일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주일예배

- 장년부 제1부 한어예배 7:40AM / 분당
- 장년부 제2부 영어예배 9:20AM / 분당
- 장년부 제3부 한어(통역)예배 ... 11:00AM / 분당
- 사랑부 예배 (장 애인).....11:00AM / 베툴레헴
- 영아부 예배 9:30, 11:00AM / O-3
- 유치부 예배 9:30, 11:00AM / 나사렛
- 유년부 예배 9:30AM / 베툴레헴
11:00AM / 나사렛
- 영어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 한어청년 1:30PM / N-201

수요일예배

- 장년부 한어예배 7:00PM / 분당
- 장년부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 영아부, 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툴레헴

금요일모임

- Youth 7:00PM / 안디옥
- 영어청년 7:30PM / 유스룸
-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 한어부 월-토 / 6:00AM / 분당
- 영어부 화-토 / 6:00AM / N-202

YouTube tfbc

www.tfbc.org



CONTACT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0

1부 인도: 남궁곤 목사

3부 예배 오전 11:00/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3부 인도: 남궁곤 목사

- * 경배와 찬양
- 1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침”
21장 “다 찬양하여라”
- 3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죄에서 자유를 얻게함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기도

1부: 철옥핍서 집사
3부: 이다니엘 집사

봉헌찬양

1,3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소식

* 성경본문

고린도전서 15:57-58

제목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말씀선포

청빙후보 목사

* 응답찬송

1,3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 축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5)

연락처(전화번호와 이메일), 중보기도 희망 요일과 시간 (예: 화요일 4시부터 5시까지).
※ 10/13(수) 수요일예배 중에 중보기도사역 선서식이 있습니다.

- TFBC 북클럽 시즌 2: 온라인 Zoom으로 진행할 북클럽 시즌 2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팀 컬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으로 6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10/14 첫모임 시작). 신청: 남궁곤 목사 (253-753-8310)
신청마감: 10/10(오늘). 수강생이 5인 이하인 경우 북클럽 모임은 취소됩니다.
- 청지기/돌봄지기 모임: 10/16(토) 오전 7:10. 장소: 성가대연습실
- 학생부/영아청년 학부모 모임: 10/17(주일) 3부 예배후. 장소: 안디옥
- 사무처리회 안내: 10/24(주일) 오후 1시. 본당
※ 안건 (1) 4대 담임목사 청빙 투표 (2) 2022년 임시예산안 승인
※ 2022년 예산안(가안)을 사무실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예산안은 2021년(작년)과 동일합니다.
예산안을 미리 보기 원하는 성도는 교회 사무실(업무시간 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사진촬영과 복사는 안됩니다. 원활한 사무처리회 진행을 돕기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과 질문이 있는 경우 교회 대표 이메일(tfbc002@gmail.com)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하베스트 나잇”을 위한 캔디 도네이션: 올해 하베스트 나잇도 COVID-19으로 Drive-thru 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회 로비 캔디 도네이션 박스에 캔디를 가져다 주시거나 C-Drive로 현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캔디를 후원할 때는 포장이 뜯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신 캔디는 우리교회 자녀들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 초등학교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 트루 워십퍼스 12 찬양집회: 11/3(수) 오후 7시 본당
COVID-19으로 지쳐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클래식 찬양집회를 본당에서 갖습니다.
- 하나님의 VIP 2021년 3기 개강: 11/7(주일) 오후 1시. 새가족실.
5주 과정의 하나님의 VIP를 수강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은 로비의 신청서나 교회 사무실에 전화로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교우동정(Compassion) ◆

- ◇ 목회자 휴가: 남궁곤 목사 휴가(10/11-16)
- ◇ 소천:故조육빈(조동현 모친/조덕임 시모) 10/5 소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사무실 휴무: 10/11(월) Columbus Day로 사무실 휴무합니다.
- ◇ 중보: James Roberts, Willie Buggs, Leah An, John Zemzars, William Dungey, Kenneth Adkins, Eric Mose, Tom Bayliss, 신의범

■■■■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사역자를 만나 교회 등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TFBC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워싱턴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방문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2부/3부/유스(영어청년부)/수요성령예배/새벽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 제공합니다.
- * 유년부, 유치부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제공합니다.
- * 영아부,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현장예배 가이드라인

- *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로서로 신체 접촉은 피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이나 가족 중 아프신 분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 * 예배가 끝나면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본당 건물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세대예배(유치, 유년, Youth) 때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체온 점검, 이름 기록을 하겠습니다.

1. **2021년 교회 표어는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풍성한 찬양과 말씀이 있는 수요성령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강"이란 주제로 누가복음 강해를 진행 중입니다. 수요성령예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제 4대 담임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오늘(10/10 주일) 두번째 후보 목사님께서 1, 2, 3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 위해 방문 하셨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본당에서 청빙 후보 목사님의 삶과 비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Q&A(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갖습니다. 청빙 후보 목사님들의 방문과, 이후 청빙 투표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3부 예배 후 Q&A**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 빵과 물을 점심 대용으로 본당 입구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본당을 방역하는 동안 주차장이나 개인 차량 안에서 드시고 **12:50까지 본당에 입장**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디모데제자훈련 2단계**(기독교 기본진리)는 청빙 후보자 목사님 Q&A 로 인하여 휴강합니다.

4. **제 58기 중보기도 사역: 10/1(금)부터** 시작된 제 58기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기를 희망하시는 성도들을 모집합니다. 로비에 사인업 하시거나 교회 사무실 혹은 공동체 담당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tfbc002@gmail.com 으로 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 신청내용: 신청자 이름과

수요성령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수요일 저녁 7:00/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인도: 전우일 목사

찬양과기도	찬 양 팀
기 도	민정위드맨 집사
제 목	[누가복음 강해/ 평강 39]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성경 본문	누가복음 11:1-4
말씀 선포	전우일 목사

■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 도 Prayer	1부 철옥핏서 집사 3부 이다니엘 집사 수요 민정위드맨 집사	1부 인숙랭 집사 3부 이재찬 집사 수요 유정옥 집사
주차장	안전을 위해서 본당 앞쪽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Usher	안내: ①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① 당분간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②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이나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찬 봉사	COVID-19으로 당분간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날짜	본문	설교자	날짜	본문	설교자
10/11(월)	욥기 6:1-13	안재훈 목사	10/12(화)	욥기 6:14-30	전우일 목사
10/13(수)	욥기 7:1-10	정주영 목사	10/14(목)	욥기 7:11-21	안재훈 목사
10/15(금)	욥기 8:1-7	전우일 목사	10/16(토)	욥기 8:8-22	정주영 목사

※ 새벽예배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제공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 **본문: 누가복음 10:38-42**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앞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결코 우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뒤에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10장 25절에서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웃 사랑은 내가 사랑할만한 이웃을 골라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며, 그것이 이웃 사랑의 참 실천이라고 알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제발 행동을 실천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주체는 ‘마르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은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영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집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은 제자가 스승의 곁에 앉아서 교훈을 자세히 배운다는 말을 묘사하는 유대인들의 표현방식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마치 학생이 선생에게 배우듯이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니 마르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너무 바쁘고 힘들데, 자신을 도와야 할 마리아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있지 않으니 화가 났던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직접 부탁을 합니다. **“40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 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 주라고 하십시오 (현대인의성경).”**

여러분! 마르다의 말에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녀의 말에 공감이 됩니다. 우리도 집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바쁘게 일하고 봉사하는데, 나와 함께 일해야 할 가족이나 동료나 교우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화가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고대 근동사회, 유대사회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환대문화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보통 손님이 오면 3일 정도는 대접하는 것이 기본이고, 적당히 먹여주고 채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 정성으로 모시죠. 그러다보니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느 가정에 손님이 오면 제일 바쁜 사람이 그 집의 여성들입니다. 손님 방도 준비해야죠, 잔치상도 차려야죠. 그런 일로 바쁘게 정상이었는데, 마리아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님하고 어울린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었던거죠. 2천년전 유대사회에서 마르다의 섬김은 지극히 당연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그녀의 불만은 누구나 공감할만한 내용이었던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합리적인 마르다의 불평에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41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42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현대인의성경).”** 여기서 예수님이 두번이나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녀를 안타까워 하시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도 분명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녀가 가진 불만을 안타까워 하셨고, 냉정하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직설적으로 그녀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 네가 하는 일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도로 마르다를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마르다에게 기쁨과 평안이 없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분명히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는데, 정작 마르다는 평강이 없었고, 처음에 가졌던 기쁨의 마음도 어느새 분노와 짜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마르다의 이런 마음 상태에 관한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도, 손님 대접으로 바쁘게 일해야 할 여성이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고, 다른 남자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텐데 다들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눈치를 주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오해를 받을수도 있고, 자신의 언니를 화나게 만드는 것도 알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비난과 나중에 있을 불이익들을 감수해서라도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뻔뻔해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 역시 오해와 비난을 무릎 쓰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사랑의 실제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우리의 생각, 시선, 행동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다를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2천년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이사라와 그리스도 중에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것인가를 강요당하고, 그들의 믿음이 시험당했던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시험과 박해를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로부터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예수의 평강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것은 우리의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말은 ‘사방에서 끌어 당기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단 한차례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으며,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바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바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하는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성경을 읽기에는,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우리 마음 속에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리 저리 끌어 당기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는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바쁘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 순위, 물질의 우선 순위, 마음의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맞추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로 믿습니다.

[묵상질문]

1.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2. 현재 나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3.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